『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3)*

-권8, 18:05~19:23 부분을 중심으로-

이병기**

요 약

이 글은 『瑜伽師地論』(Yogacārabūṃmi) 권8의 18, 19장을 중심으로 『유가사지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권8의 18장 5행부터 19장 23행까지의 점토 석독 구결의 해독 방안을 이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것이다.

*핵심어: 유가사지론, 점토구결

1. 『유가사지론』 권8의 18, 19장의 내용

이 글은 『瑜伽師地論』(Yogacārabūṃmi) 권8의 18,19을 중심으로 『유가사지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권8의 18장 5행에서 19장 20행까지의 해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권 8은 제3~5지 윤회의 세계를 논하는 有尋有伺等三地(권4-권10) 중 雜染施設建立의 일부에 해당한다. 雜染施設建立은 ㉠煩惱雜染, ㉡業雜染, ㉢生雜染의

---

* 이 글은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5년 11월 19)에서 강독하고 논의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강사.

三種雜染으로 말미암는데 각각의 雜染은 ①自性, ②分別, ③因, ④位, ⑤門, ⑥上品, ⑦顚倒攝, ⑧差別, ⑨過失의 9가지 연고로 말미암는다. 이 두 가지 원인을 조합하면 27가지가 되는데 본고의 대상은 業分別(09:21-20:20)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業分別은 '補特伽羅相差別'과 '法相差別'의 두 가지 차별로 말미암는데 두 차별에는 또 각각 10가지 善業道와 不善業道가 있다 『瑜伽師地論』 권 8의 18장 5행은 補特伽羅相差別에서 10가지 '不善業道'를 떠난 善業道에 대하여 설명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瑜伽師地論』 권 8의 19장 5행부터는 다시 法相差別의 不善業道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2. 해독안

이 글에서 점토 석독 구결의 해독안은 다음과 같이 이전 논문의 틀에 따라 A부터 E까지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A: 한문 원문 순서대로 각 한자에 현토된 점토의 위치 및 형태 표시
B: A의 점토구결을 자토구결로 바꾼 것
C: 우리말 어순에 맞게 고치고, 생략된 토를 보충하여 자토석독 구결의 형식으로 바꾼 것
D: C의 문법 형태를 고려하여 현대어로 직역한 것
E: 한문 원문에 대한 동국대학교 역경원의 번역

<유가08 18:05-06>

A: 復次[23(·)]白品一切[33(·)]翻[33~43(/)]前[34(·),43(·),지시선(/)][1]
應知[42(\),53(/)]所有[33(/),42(·)]差別[34(·)]我[33(·)]今[32~33

(·)]當說[+41~51(··)]

B: 復次[ㅋ]白品一切[ㄱ]翻[ㅅㄱ 卩]前[乙,灬]應知[ノ亠七,x丄[2)]所有[ㅅㄱ,七]差別[乙]我[ㄱ]今[X[3)]當說[xㅣ]

C: 復 次ㅋ 白品 一切ㄱ 前乙灬 翻ㅅㄱ 卩 知ノ亠{應}七x丄 有ㅅㄱ 所七 差別乙 我ㄱ 今X 當 說xㅣ

D: 또 다음으로 白品[4)] 一切는 앞을 뒤집는 것이니, 알아야 할 것이니, 있는 바의 차별을 나는 이제 반드시 말하겠다.

E: 다음에 흰 품류의 온갖 것은 앞의 것과는 반대의 것인 줄 알아야 하리니, 모든 차별을 내가 이제 설명하겠다.

<유가08 18:06-07>

A: 謂翻欲邪行[34(·),11~21(-),42(·)]中[44(·)]諸梵行者[51(·)]者[=23~33(··)[5)]]此[33(·)]是捨句[22~32(·),55(·)]

B: 謂翻欲邪行[乙,ㅌ,七]中[十]諸梵行者[ㅣ]者[xㅅㄱ]此[ㄱ]是捨句

---

1) '前'에는 중간 부분에 세로로 '32'에서 '34'를 잇는 긴 선이 있다. 이 선은 <유가08 17:17>의 '六'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직 그 기능을 알 수 없다. "通慧[51(·)]者[23~33(··)]謂第六[34(·),43(·),54~55(:)]" 이 두 곳의 공통점은 '乙灬'에 해당하는 [34(·),43(·)]가 현토되어 있다는 점이다.

2) 서민욱(2005:130, 부록83)에서는 사선을 'ㅅㄱ'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 [53(·)](亠)와 관련지어 'ㅅㄱ亠'로 해독하였다.

3) 서민욱(2005:31)에서는 위치를 [32~33]으로 보고 '日'으로 해독했으나, 장경준(2005:303)에서는 위치를 [32~42]로 보고 '八'으로 해독하였다. 자토 석독구결에서 '今'에 현토되는 구결은 크게 'ㅅㄱ, 日, 八'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今日'은 『유가사지론』에만 5회 보이고 뒤에 수식관계는 확실하지 않지만 명사상당어구가 나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위치는 [32~42]와 구별되지만 유일례이고 기능상의 특징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미해독으로 남겨 둔다.

4) 白品은 10장 6행부터 18장 4행까지 나열한 麤惡語, 貪欲, 邪見 등과 반대가 되는 ①離殺生, ②離不與取, ③離欲邪行, ④離妄語, ⑤離離間語, ⑥離麤惡語, ⑦離綺語, ⑧離貪欲, ⑨離瞋恚, ⑩離邪見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오른쪽 점이 글자의 획을 피하여 약간 위치해 있다. 서민욱(2005)에서는 이를 '[23~33(··)#23~33(.·)]'로 표시하였다.

[ㅐ,ㅿ]

C: 謂 欲邪行乙 翻(ㅅ)ㅌㅊ 中十 諸 梵行者(ㅐ)ㅣ{者}x入ㄱ 此ㄱ 是 捻句ㅐㅿ

D: 즉 欲邪行을 뒤집는 가운데에서 모든 梵行者다 함은, 이는 捻句이며

E: 음욕의 사뙨 행과 반대되는 것 중에서 모든 맑은 행을 행하는 이라 함은 이는 바로 총구이며,

<유가08 18:07-08>

A: 當知[51(·)]此[33(·)]由三種淸淨[34(·),22(·)]而[43(·)]得[역독선]淸淨[34(·),33~43(/),+11(·)]

B: 當知[ㅣ]此[ㄱ]由三種淸淨[乙,ㅈ]而[ᄭ]得淸淨[乙,ㅅㄱ 印,丁]

C: 當(ㅅ) 知(ㅎ)ㅣ 此ㄱ 三種 淸淨乙 由ㅈ 而ᄭ 淸淨乙 得ㅅㄱ 印丁

D: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는 세 가지 淸淨을 말미암아 淸淨을 얻는 것인 줄.(것이다).

E: 이는 세 가지의 깨끗한 것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는 줄 알아야 하리니,

<유가08 18:08-09>

A: 一時分淸淨[31(·)]二他信淸淨[31(·)]三正行淸[31(·),51(·)][6]淨

B: 一時分淸淨[ㅅ]二他信淸淨[ㅅ]三正行淸[ㅅ,ㅣ]淨

C: 一 時分淸淨ㅅ 二 他信淸淨ㅅ 三 正行淸淨ㅅ(ㅐ)ㅣ

D: 첫째 時分淸淨과 둘째 他信淸淨과 셋째 正行淸淨이다.

E: 첫째는 시분이 깨끗함이요, 둘째는 다른 것의 믿음이 깨끗함이요, 셋째는 바른 행이 깨끗함이다.

---

6) 지시선은 보이지 않는데 '淨'자에 현토되어야 할 점토들이 그 앞 '淸'자에 현토되어 있다. 지시선에 의존할 환경도 아니어서 단순한 잘못으로 여겨진다.

<유가08 18:09-10>

A: 盡壽[삐침선(43~44,/)]行[43(丨)]故[55(·)]久逮[45(·)]行[43(丨)]故[51(·)]者[23~33(··)]此[33(·)]顯[역독선]時分淸淨[34(·),55(:)]

B: 盡壽行[x亠][7]故[ㅎ]久逮[ㅈ]行[x亠]故[ㅣ]者[xㅅㄱ]此[ㄱ]顯時分淸淨[乙,xㅎ]

C: 盡壽 行x亠{故}ㅎ 久逮ㅈ 行x亠{故}(ㅛ)ㅣ{者}xㅅㄱ 此ㄱ 時分淸淨乙 顯xㅎ

D: 盡壽하게 行하는 까닭이며 久逮히 行하는 까닭이다 함은, 이는 時分淸淨을 나타내는 것이며

E: 목숨이 다하기까지의 행과 몹시 오랜 동안의 행 때문이라 함은 이는 시분이 깨끗함을 나타내며,

<유가08 18:10-11>

A: 諍處[22~32(·),2자합부?]雪[43(丨)]故[21(·)]名[54(·)][8]淸[53(·),55(·)]无違越[33(/),43(/)]故[21(·)]名[54(·)]淨[53(·),지시선(\)]此[53(:)]二[33(·)]捻[45(·)]顯[역독선]他信淸淨[34(·),51(.·)#51(:)]

B: 諍處[ㅛ]雪[x亠]故[ノ]名[下]淸[一,ㅎ]无違越[ㄴㄱ,ㄴㄱ亠]故[ノ]名[下]淨[一]此[x一]二[ㄱ]捻[ㅈ]顯他信淸淨[乙,xㅣ]

---

7) 서민욱(2005)에서는 '[43(/)]'에 대하여 'ㄴㄱㅅ亠'로 해독하고 [43(丨)]에 대하여는 'xㄱㅅ亠'로 해독하였다. 실제로 'ㄴㄱㅅ亠{故}ㅎ'는 7회 출현하지만 'ㄴㄱ亠{故}ㅎ'는 한 번도 출현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환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토석독 구결에서 'ㄴㄱ亠'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점토 석독 구결 자료가 자토석독 구결 자료보다 이전 자료이고 '동명사어미+조사'가 '동명사어미+의존명사+조사'보다 선행한다는 점, 그리고 [43(·)]이 '亠'라는 점에서 우선 '[43(/)]'에 대하여 'ㄴㄱ亠'로 해독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자토구결 자료의 해독에 있어서 이미 'ㅅ' 통합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8) [54(·)]이 한자의 획에 기입되어 있어 사진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C: 諍處ㅣ 雪x灬{故}ㅅ 名ㅏ 淸ㅗ(ㅅ)ㅏ 違越ㅅㄱ 无ㅅㄱ 灬{故}ㅅ 名ㅏ 淨ㅗx ㅗ 此 二ㄱ 捻ㅎ 他信淸淨乙 顯xㅣ

D: 諍處가 깨끗한 까닭으로 일컬어 淸이라고 하며 어긋남이 없는 까닭으로 일컬어 淨이라고 하니, 이 둘은 통틀어 他信淸淨을 나타낸다.

E: 다툼의 곳이 싸뜻하기 때문에 맑다 하고 어김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다 하나니, 이 두 가지는 다 다른 것의 믿음이 깨끗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유가08 18:11-12>

A: 此[42(·)]中[=44(·)]或有[52(·)]淸[22~32(·),+15(·),구결자(ㅣㅁ)]而[43(·)]非淨[42(-),52(/),경계선]應作[역독선]四句[34(·),42(\),51(·)]

B: 此[ㅌ]中[十]或有[ㅏ]淸[ㅣ,ㅁ]而[灬]非淨[X,xㅗ][9]應作四句[乙,ㅅㅎㅌ,ㅣ]

C: 此ㅌ 中十 或 有ㅏ(ㅣ) 淸ㅣㅁ 而灬 淨 非Xxㅗ 四句乙 作ㅅㅎ{應}ㅌㅣ

D: 이 가운데에 혹 있다, 淸이고 淨 아닌 것이니, 四句를 지어야 할 것이다.

---

9) 서민욱(2005)에서는 <유가사지론> 권8에서 '42(-)'가 유일한 예로 나타나고 (유가 권 5에는 'xㅎㅌ'로 판독되는 [42(-)]이 여러 번 나타난다.) 마땅한 해독안이 없기 때문에 경계선의 모양을 바로 잡기 위한 수정선으로 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구결을 나타내는 선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아래의 사선을 [=(+)52(/)#52~53(/)]으로 보고 "ㄱㅣㅗ"로 판독하였다. '42(-)'가 "Aㅣㅁ 而灬 A′ 非-" 구문에 필요한 것인지, '或 有ㅏ(ㅣ)'의 도치 구문에 필요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전자의 유형은 자토 석독 구결 자료에 보이지 않고, 후자의 구문에서도 '-ㄱㅗ(ㅅ)' 앞에 특별한 어미 구조체가 나오는 일이 없어 현재로서는 미상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 이 중에는 혹은 맑으면서도 깨끗하지 아니함이 있으므로 네 가지 구절을 지어야 된다.

<유가08 18:12-13>

A: 初句[51(·)]者[23~33(··)]謂實[33(·)]毁犯[53(/),경계선]於諍[44(·)]得勝[54~55(.·),2자합부]

B: 初句[ㅣ]者[xㅅㄱ]謂實[ㄱ]毁犯[ㄴㄱㅗ]於諍[十]得勝[xケ]

C: 初句(ㅐ)ㅣ{者}xㅅㄱ 謂 實ㄱ 毁犯ㄴㄱㅗ {於}諍十 得勝xケ

D: 初句다 함은, 즉 실은 毁犯하고도 다툼에서 得勝하는 것이며

E: 첫째 구절은 실제로 범하여 다툼에서 이기게 됨이요,

<유가08 18:13-14>

A: 第二句[51(·)]者[23~33(··)]謂實[33(·)]不犯[53(/)]於諍[44(·)]墮負[54~55(.·)#55(.·)]

B: 第二句[ㅣ]者[xㅅㄱ]謂實[ㄱ]不犯[ㄴㄱㅗ]於諍[十]墮負[xケ]

C: 第二句(ㅐ)ㅣ{者}xㅅㄱ 謂 實ㄱ 不犯ㄴㄱㅗ {於}諍十 墮負xケ

D: 第二句다 함은, 즉 실은 不犯하고도[10] 다툼에서 墮負하는 것이며

E: 둘째 구절은 실제로 범하지 아니하여 다툼에서 지게 됨이요,

<유가08 18:14-15>

A: 第三句[51(·)]者[23~33(··)]謂實[33(·)]不犯[35(·)]於諍[44(·)]得勝[35(·),54~55(.·)#55(.·)]

10) 四句의 설명에서 不犯과 毁犯여부와 勝負 관계에 대한 면밀한 의미 고찰이 필요하며 犯의 대상이 淸淨인지, 이기고 지는 대상과 같은 것인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또한 'ㄴㄱㅗ'와 '(ㄴ)ㅎ'가 같은 의미인가 다른 의미인가? 다르다면 형태적 고찰과 함께 정확한 문맥 파악에 따른 설명도 필요하다. 이러한 설명이 충족될 때 이 구문에 대한 해독이 완전해질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후고를 기다리기로 한다.

B: 第三句[ㅣ]者[xㅅㄱ]謂實[ㄱ]不犯[ᄒᆞ]於諍得勝[ᄒᆞ,xᄀᆞ]

C: 第三句(ㅢ)ㅣ{者}xㅅㄱ 謂 實ㄱ 不犯(ㄴ)ᄒᆞ {於}諍(十) 得勝(ㄴ) ᄒᆞxᄀᆞ

D: 第三句다 함은, 즉 실은 不犯하고 다툼에서 得勝하고 하는 것이며

E: 셋째 구절은 실제로 범하지 아니하여 다툼에서 이기게 됨이요,

<유가08 18:15>

A: 第四句[51(·)]者[23~33(··)]謂實[33(·)]毁犯[35(·)]於諍[44(·)]墮負[35(·),51(.·)]

B: 第四句[ㅣ]者[xㅅㄱ]謂實[ㄱ]毁犯[ᄒᆞ]於諍[十]墮負[ᄒᆞ,xㅣ]

C: 第四句(ㅢ)ㅣ{者}xㅅㄱ 謂 實ㄱ 毁犯(ㄴ)ᄒᆞ {於}諍十 墮負(ㄴ)ᄒᆞ xㅣ

D: 第四句다 함은, 즉 실은 毁犯하고 다툼에서 墮負하고 하는 것이다.

E: 넷째 구절은 실제로 범하여 다툼에서 지게 된 것이다.

<유가08 18:16>

A: 不以愛染身[34(·),24(·)]觸[역독선]母邑[34(·),43(ㅣ)]故[21(·)]名[54(·)]逮離生臭[53(·),55(:)#54~55(:)][11]

B: 不以愛染身[乙,ᄉᆞ]觸母邑[乙,xᄆᆞ]故[ㄴ]名[下]逮離生臭[ㅗ,xᄀᆞ]

C: 愛染身乙 {以}ᄉᆞ 母邑乙 觸 不(ᄉᆞ)xᄆᆞ{故}ㄴ 名下 逮離生臭ㅗxᄀᆞ

D: 愛染身을 써 母邑[12]을 접촉하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일컬어 逮離

11) 장경준(2005)에서는 "[54~55(:)]"로, 서민욱(2005)에서는 "[54~55(:)#55(:)]"로 판독하였다.

12) 모읍(母邑): (matṛgrāma) 摩咀理伽羅摩 the community of mothers, womankind. <부다피아 불교용어사전(http://www.buddhapia.com/_service/Dicsearch/term_dic_popup.asp) 참고.> 여기서는 '여성'의 의미로 파악된다.

生臭라고 하며

E: 애욕의 더러운 몸으로써 모읍을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생취를 멀리 여읜다고 하며,

<유가08 18:17>

A: 不行兩兩交[24(\),42(·)]會[지시선(/)]鄙事[34(·),43(|),2자합부,역독선-각주[13)]]故[21(·)]名[54(·)]逮離婬欲[53(·),55(:)#54~55(:)]

B: 不行兩兩交[ノ仝,匕]會鄙事[乙,x灬]故[ノ]名[下]逮離婬欲[亠,x分]

C: 兩兩 交會ノ仝匕 鄙事乙 行(ㄴ尸) 不(冬)x灬{故}ノ 名下 逮離婬欲亠x分

D: 兩兩이 交會하는 더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까닭으로 일컬어 逮離婬欲이라고 하며

E: 두 사람이 성교하는 더러운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음욕을 멀리 여읜다고 하며,

<유가08 18:18-19>

A: 不[역독선]以[역독선]餘[33(·)]手觸等[33(/)]方便[34(·),24(·)]而[43(·)]出[역독선]不淨[34(·),21(.·)]故[41(·)]名[54(·)]非鄙[53(·),55(:)# 54~55(:),2자합부]

B: 不以餘[丁]手觸等[ㄴ丁]方便[乙,彳]而[灬]出不淨[乙,X]故[厶]名[下]非鄙[亠,x分]

13) 이승재외(2005)에서는 이를 경계선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事[43(|)]'이나 '故[21(·)]'이 선을 경계로 자리매김하는 점토가 아니므로 경계선으로서의 역할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점토 『瑜伽師地論』에서 역독선은 보통 술목구조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한자에 오른쪽 아래로 호를 그리는데 목적어 역할을 한자에 왼쪽 위로 호를 그리는 것도 같은 기능을 갖는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인 역독선과 용어상의 혼란이 문제라면 '상위 술어와 호응함'이라는 뜻을 가진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C: 餘ㄱ 手觸 等ㅅㄱ 方便乙 {以}ㅣ 而ㅱ 不淨乙 出 不(ᄉᆞ)X 故ㅿ 名ㅏ 非鄙ㅗxㅎ[14]

D: 남은 手觸 등의 방편을 써 不淨을 내지 않으니, 그러므로 일컬어 非鄙라고 하며

E: 달리 손으로 대는 등의 방편으로써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내지 않기 때문에 비천한 애욕이 아니라고 하며,

<유가08 18:19>

A: 愛[15]願[15(·),2자합부]受持[2자합부-역독선]梵行[34(·),43(ㅣ)]故

14) 자토 석독 구결 자료에서 명칭을 지정하는 구문에서 'ㅗ(또는 ㅣ)'와 'ㅎ' 사이에 'ㅅㅐ'가 주로 나타난다. 단지 'ㅣㅅㅐㄹㅎ'가 『구역인왕경』에 5회, 'ㅣ(ㅗ)ㅅㅎ'가 『구역인왕경』에 2회, 『유가사지론』에 2회, 『화엄경소』에 각 1회, 'ㅗㅅㅐㄴㅎ'가 『금광명경』에 1회 나타날 뿐이다. 'ㅣ(ㅗ)ㅅㅎ'가 나타나는 경우 후행문에는 모두 'ㅅㅐ-'가 나타난다. 점토 석독 구결 자료 『瑜伽師地論』 권 5,8에서 '名ㅏ NP' 구문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즉 『瑜伽師地論』 권 8 뒷부분에서부터 연결어미 '-ㅎ'와 관련하여서는 '(·.)'이 '(:)'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종결어미 'ㅣ'의 경우도 같은 부분에서부터 잠깐 '(:)'으로 나타나다가 다시 '(·.)'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성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장경준(2004:217)에서 '者'의 현토 양상도 『瑜伽師地論』 권 8 뒷부분에서(10장 이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다른 구문들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 [42(-)]도 권5와 권8의 큰 차이 중의 하나이다. 한편 서민욱(2005)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내용 구성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구분	<유가05>	<유가08 1:01-14:08>	<유가08 14:09-18:19>	<유가08 18:20-끝>
(+)55(·.)#	24		0	
(+)55(:)#	0		25	
(+)51(·.)#	11		0	1
(+)51(:)#	0		5(-18:19)	0

15) '愛'자에는 점토 [53(·),55(:)#54~55(:)]이 현토되었다가 뭉개어진 흔적이 보인다.

[21(·)]名[54(·)?]逮離猥法[53(·),51(:),4자합부][16]

B: 愛願[ホ]受持梵行[乙,xㅛ]故[ノ]名[下]逮離猥法[ㅗ,xㅣ]

C: 愛願(ㅅㅎ)ホ 梵行乙 受持xㅛ{故}ノ 名下 逮離猥法ㅗxㅣ

D: 愛願하여서 梵行을 受持하는 까닭으로 일컬어 逮離猥法이라고 한다.

E: 서원하여 맑은 행을 받아 지니기 때문에 추잡한 법을 멀리 여읜다고 하나니,

<유가08 18:20>

A: 如是[34(/)]名[54(·)]爲正行淸淨具足[53(·),+51(·.),6자합부]

B: 如是[ㅅㄱ乙]名[下]爲正行淸淨具足[ㅗ,xㅣ[17]]

C: 是 如ㅅㄱ乙 名下 {爲}正行淸淨具足ㅗxㅣ

D: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正行淸淨具足이라고 한다.

E: 이와 같은 것을 바른 행의 깨끗함이 완전하다고 하며,

<유가08 18:21>

A: 當知[51(·)]略義[33(·)?]卽在此[33~43(/),+11(·)]中[44(·),지시선(/)]

B: 當知[ㅣ]略義[ㄱ]卽在此[ㅅㄱ 卩,丁]中[十]

C: 當(ㅅ) 知(ㅎ)ㅣ 略義ㄱ 卽 此 中十 在ㅅㄱ 卩丁

D: 반드시 알아야 한다, 略義는 곧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인 줄.

E: 간략한 이치도 곧 이 안에 있는 줄 알아야 한다.

---

16) 장경준(2005)에서는 "[51~52(:)]"로, 서민욱(2005)에서는 "[51~52(:)#51(:)]"로 판독하였다.

17) 서민욱(2005:부록85)에서는 [+51(·.)]에 대하여 'ノㅊㅣ'로 판독한 반면 앞에 같은 문맥에 현토된 수직 쌍점은 'xㅣ'로 판독하였다.

<유가08 18:21-22>

A: 又翻[역독선]妄語[34(·),11~21(-),42(·)]中[44(·)]可信[51(·),2자합부]者[23~33(··)]謂可委[42(\)]故[43(/),55(·)]

B: 又翻妄語[ㄛ,ㅌ,ㅣ]中[十]可信[ㅣ]者[xㅅㄱ]謂可委[ㅅㅎㅣ]故[ㅅㄱ ᄭ,ᄀᆞ]

C: 又 妄語ㄛ 翻(ㅅ)ㅌㅣ 中十 可信(ㅢ)ㅣ{者}xㅅㄱ 謂 委ㅅㅎ{可}ㅣㅅㄱ ᄭ{故}ᄀᆞ

D: 또 妄語을 뒤집는 가운데에서 可信이다 함은, 즉 맡길 수 있는 까닭이며

E: 또 거짓말과 반대되는 것 중에서 믿을 수 있다 함은 맡길 수 있다 함이며,

<유가08 18:22>

A: 可委[51(·),2자합부]{41~42(·)}者[23~33(··)]謂[33(·)]可寄託[42(\),43(ㅣ)]故[55(·)]

B: 可委[ㅣ]者[xㅅㄱ]謂[ㄱ]可寄託[ㅅㅎㅣ,xᄭ[18]]故[ᄀᆞ]

C: 可委(ㅢ)ㅣ{者}xㅅㄱ 謂ㄱ 寄託ㅅㅎ{可}ㅣxᄭ{故}ᄀᆞ

D: 可委다 함은, 즉 寄託할 수 있는 까닭이며

E: 맡길 수 있다 함은 부탁하여 맡길 수 있다 함이며,

<유가08 18:22-19:01>

A: 應可建立[51(·),4자합부]者[23~33(··)]謂於彼彼違諍事[=42(·)]中[44(·)]應可[2자합부-역독선]建立[15(·),2자합부]爲正證[24(·),42(\)]故[43(ㅣ)[19],55(·)?][20]

---

18) 앞 문장과 같은 문맥인데 앞에서와 달리 수직선으로 현토되었다.

19) 장경준(2004)에서는 앞에서와는 달리 故에 [43(ㅣ)]이 현토된 사실을 '故'를 부독자로 보는 논거 중 하나로 들었다.

B: 應可建立[ㅣ]者[xㅅㄱ]謂於彼彼違諍事[ㄷ]中[十]應可建立[ホ]爲正證[ㅓ,ノ宀ㄷ]故[xᄭ,分]

C: 應可建立(ㄐ)ㅣ{者}xㅅㄱ 謂 {於}彼彼違諍事ㄷ 中十 建立(ソ彡)ホ 正證 {爲}ㅓノ宀{應可}ㄷ{故}xᄭ分

D: 應可建立이다 함은, 즉 彼彼違諍事의 가운데에 建立하여서 正證 삼을 만한 까닭이며

E: 세워야 하겠다 함은 그와 그가 어기면서 다투는 일 가운데서 세워서 바른 증거로 삼아야겠다 함이며,

<유가08 19:01-02>

A: 无有虛誑[51(·),4자합부]者[23~33(‥)]於委寄[24(\),=42(·)][21]中[44(·)]不虛誑[43(丨)]故[55(·)]不欺誾[43(丨)]故[51(·)]

B: 无有虛誑[ㅣ]者[xㅅㄱ]於委寄[ノ仌,ㄷ]中[十]不虛誑[xᄭ]故[分]不欺網[xᄭ]故[ㅣ]

C: 无有虛誑(ㄐ)ㅣ{者}xㅅㄱ {於}委寄ノ仌ㄷ 中十 不虛誑xᄭ{故}分 不欺誾xᄭ{故}ㅣ

D: 无有虛誑이다 함은, 委寄하는 가운데에 不虛誑하는 까닭이며 不欺誾하는 까닭이다.

E: 거짓이 없다 함은 맡겨 놓은 것 안에서 거짓이 없고 속이지 않기 때문이다.

<유가08 19:02-04>

A: 此[42(·)]中[22(·),42(·)]略義[22~32(·)]者[15~25(-),23~33(·)]謂

---

20) 서: 虛誑(ソ尸) 不xㄱㅅᄭ{故}分 欺誾(ソ尸) 不xㄱㅅᄭ{故}ㅣ

21) [42(·)] 옆에 각필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선이 있는데 만약 각필에 의한 것이라면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42(·)]에 대하여 '='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顯[역독선]三種攝受[33~43(·)]一欲解攝受[31(·)]二保任攝受[31(·)]三作用攝受[31(·),34(·),51(:)][22]

B: 此[ㄴ]中[ㅋ,ㄴ]略義[ㅂ]者[尸,ㅅㄱ]謂顯三種攝受[印]一欲解攝受[ㅅ]二保任攝受[ㅅ]三作用攝受[ㅅ,乙,x ㅣ]

C: 此ㄴ 中ㅋㄴ 略義ㅂ{者}尸ㅅㄱ 謂 三種 攝受印 一 欲解攝受ㅅ 二 保任攝受ㅅ 三 作用攝受ㅅ乙 顯x ㅣ

D: 이 가운데의 略義인 것은, 즉 세 가지 攝受이니, 첫째 欲解攝受와 둘째 保任攝受와 셋째 作用攝受를 나타내는 것이다.

E: 이 중에, 간략한 이치라 함은 세 가지 거두어 줌을 나타내나니, 첫째는 욕해의 거두어 줌이요, 둘째는 보임의 거두어 줌이요, 세 째는 작용의 거두어 줌이다.

<유가08 19:05-06>

A: 復次法相差別建立[51(·)]者[23~33(··)]謂卽煞生[31(·)]離煞生[31(·)]等[51(.·)]

B: 復次法相差別建立[ㅣ]者[xㅅㄱ]謂卽煞生[ㅅ]離煞生[ㅅ]等[x ㅣ]

C: 復 次 法相差別建立(ㅂ)ㅣ{者}xㅅㄱ 謂 卽 煞生ㅅ 離煞生ㅅ 等 x ㅣ[23]

D: 또 다음으로 法相差別建立이다 함은, 즉 곧 殺生과 離殺生 등인 것이다.

E: 법 모양의 차별을 세움이라 함은 산 목숨을 죽이는 것과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 따위이다.

---

22) 장경준(2005)에서는 "[51~52(:)]"로, 서민욱(2005)에서는 "[51~52(:)#51(:)]"로 판독하였다.

23) 或 {於}是處ㅋ十 親戚交遊ㅗ 談謔ㅗ 等ㅅㅌ {有}ㅐㅋ 住ㅅㅋㅎ <유가26:09-14>, 愛味ㅅ 慢ㅅ 見ㅅ 疑ㅅ 无明ㅅ 等ㅅㄱ 諸 隨煩惱ㅋ{之} 染汚ㅅ尸 所乙 <유가16:09-16>

<유가08 19:06-08>

A: 云何[34(·)]煞生[51(·),15(·.)[24]]謂[33(·)]於他衆生[23(·),44(·)]起煞欲樂[34(·),+15~25(-),31(·),구결자(乙)]起[역독선]染汙心[34(·),+15~25(-),31(·)]若卽[21(·)]於彼[23(·),44(·)]起煞方便[34(·),+15~25(-),31(·)]及卽[21(·)]於彼[23(·),44(·)]煞究竟[25][+15~25(-),31(·),42(·)]中[44(·)]所有[33(/),42(·)]身業[51(·)]

B: 云何[乙]煞生[丨,ノ𠂆口]謂[丁]於他衆生[ㅋ,十]起煞欲樂[乙,ノ尸,人]起染汙心[乙,ノ尸,人]若卽[ㅋ]於彼[ㅋ,十]起煞方便[乙,ノ尸,人]及卽[ㅋ]於彼[ㅋ,十]煞究竟[ノ尸,人,七]中[十]所有[ㇴ丁,七]身業[丨]

C: {云}何乙 煞生(ㅣ)丨ノ𠂆口 謂丁 {於}他 衆生ㅋ十 煞欲樂乙 起ノ尸人 染汙心乙 起ノ尸人 若 卽ㅋ {於}彼ㅋ十 煞方便乙 起ノ尸人 及 卽ㅋ {於}彼ㅋ十 煞究竟ノ尸人七 中十 有ㇴ丁 所七 身業(ㅣ)丨

D: 무엇을 煞生이라 하는가? 즉 다른 중생에게 煞 欲樂을 일으키는 것과 染汙心을 일으키는 것과 곧 그에게 煞 方便을 일으키는 것과 곧 그에게 煞 究竟하는 것 가운데에 있는 바의 身業이다.

E: 무엇을 산 목숨을 죽이는 것이라 하느냐 하면, 다른 중생에 대하여 죽이겠다는 욕망과 즐거움을 일으키고 더러움에 물드는 마음을 일으키어 곧 그를 죽이는 방편을 일으키나니, 그를 죽이게 되는 마지막 동안까지의 온갖 몸의 업이다.

<유가08 19:08-11>

A: 云何不與取[51(·),15(·.)]謂於他[23(·)]攝[33(\)]物[44(·)]起[역독선]盜欲樂[34(·),+15~25(-),31(·)]起[역독선]染汙心[34(·),+15~25(-),31(·)]{14(·)?}若卽[21(·)]於彼[23(·),44(·)]起盜方便[34(·),+15

24) 서민욱(2005)에서는 [+15(·.)]로 보았다. 이하 마찬가지.

25) 이 '竟'자는 피휘자로서 마지막 획이 없는 모양으로 나타나 있다.

~25(-),31(·)]及卽於彼[23(·),44(·)]盜究竟[26][+15~25(-),31(·),42(·)]中[44(·)]所有[33(/),42(·)]身業[51(·)]

B: 云何不與取[丨,ノ𠂆口]謂於他[亻]攝[ノ𠃌]物[十]起盜欲樂[乙,ノ尸,人]起染汙心[乙,ノ尸,人]若卽[𠂇]於彼[亻,十]起盜方便[乙,ノ尸,人]及卽於彼[亻,十]盜究竟[ノ尸,人,七]中[十]所有[ㇴ𠃌,七]身業[丨]

C: {云}何(乙) 不與取(刂)丨ノ𠂆口 謂 {於}他亻 攝ノ𠃌 物十 盜欲樂乙 起ノ尸人 染汙心乙 起ノ尸人 若 卽𠂇 {於}彼亻十 盜方便乙 起ノ尸人 及 卽 {於}彼亻十 盜究竟ノ尸人七 中十 有ㇴ𠃌 所七 身業(刂)丨

D: 무엇을 不與取라 하는가? 즉 다른 이가 가진 물건에 盜 欲樂을 일으키는 것과 染汙心을 일으키는 것과 곧 그것에 대해 盜 方便을 일으키는 것과 곧 그것에 대해 盜 究竟하는 것 가운데에 있는 바의 身業이다.

E: 무엇을 주지 않는데 가지는 것이라 하느냐 하면, 다른 이에게 딸린 물건에 대하여 훔치겠다는 욕망과 즐거움을 일으키고 더러움에 물드는 마음을 일으키어 곧 그것에 훔치는 방편을 일으키나니, 그를 훔치게 되는 마지막 동안까지의 온갖 몸의 업이다.

<유가08 19:11-14>

A: 云何[34(·)]欲邪行[51(·),15(·.)]謂於所[역독선]不應[33~43(·),42(·)]行[42(\),33(/),지시선(/)]非道[53(·)]非處[53(·)]非時[53(·),24(\),44(·)]起習近欲樂[34(·),+15~25(-),31(·)]起染汙心[34(·),+15~25(-),31(·)]若卽於彼[23(·),44(·)]起欲邪方便[34(·),+15~25(-),31(·)]及於欲邪行究竟[27][+15~25(-),31(·),42(·),5자합부]中[44(·)]所有[33(/),42(·)]身業[51(·)]

---

26) 이 '竟'자는 피휘자로서 마지막 획이 없는 모양으로 나타나 있다.
27) 이 '竟'자는 피휘자로서 마지막 획이 없는 모양으로 나타나 있다.

B: 云何[乙]欲邪行[丨,ノ𠆢口]謂於所不應[卩,七]行[ノ𠂇七,ソ丁]非道[一]非處[一]非時[一,ノ𠆢,十]起習近欲樂[乙,ノ尸,人]起染汙心[乙,ノ尸,人]若卽於彼[ラ,十]起欲邪方便[乙,ノ尸,人]及於欲邪行究竟[ノ尸,人,七]中[十]所有[ソ丁,七]身業[丨]

C: {云}何乙 欲邪行(刂)丨ノ𠆢口 謂 {於}行ノ𠂇{應}七ソ丁 不(矢)卩所七 非道一 非處一 非時一ノ𠆢十 習近欲樂乙 起ノ尸人 染汙心乙 起ノ尸人 若 卽 {於}彼ラ十 欲邪方便乙 起ノ尸人 及 {於}欲邪行究竟ノ尸人七 中十 有ソ丁 所七 身業(刂)丨

D: 무엇을 欲邪行이라 하는가? 즉 행하여서는 안 되는 바의 非道이니 非處이니 非時이니 하는 것에 習近 欲樂을 일으키는 것과 染汙心을 일으키는 것과 곧 그것에 대해 欲邪 方便을 일으키는 것과 欲邪行 究竟하는 것 가운데에 있는 바의 身業이다.

E: 무엇을 음욕의 사뙨 행이라 하느냐 하면, 행하여서는 안 될 바의 길 아닌 데와 처소가 아닌 데와 때가 아닐 적에 가까이 하는 욕망과 즐거움을 일으키고 더러움에 물드는 마음을 일으키어 곧 그것에 음욕의 사뙨 행인 방편을 일으키나니, 음욕의 사뙨 행이 되는 마지막 동안까지의 온갖 몸의 업이다.

<유가08 19:14-17>

A: 云何妄語[51(·),15(·.)]謂於他有情[23(·),44(·)]起覆想說欲樂[34(·),+15~25(-),31(·)]起染汙心[34(·),+15~25(-),31(·)]若卽[21(·)]於彼[23(·),44(·)]起僞證方便[34(·),+15~25(-),31(·)]及於僞證[44(·)]究竟[28][+15~25(-),31(·),42(·)]中[44(·)]所有[33(/),42(·)]語業[51(·)]

B: 云何妄語[丨,ノ𠆢口]謂於他有情[ラ,十]起覆想說欲樂[乙,ノ尸,人]起

28) 이 '竟'자는 피휘자가 아니다.

染汙心[乙,ノ尸,人]若卽[ㄱ]於彼[ㅋ,十]起僞證方便[乙,尸,人]及於僞證[十]究竟[ノ尸,人,七]中[十]所有[ㅅㄱ,七]語業[ㅣ]

C: {云}何(乙) 妄語(ㅐ)ㅣノ仝ㅁ 謂 {於}他 有情ㅋ十 覆想說欲樂乙 起ノ尸人 染汙心乙 起ノ尸人 若 卽ㄱ {於}彼ㅋ十 僞證方便乙 起ノ尸人 及 {於}僞證十 究竟ノ人七 中十 有ㅅㄱ 所七 語業(ㅐ)ㅣ

D: 무엇을 妄語이라 하는가? 즉 다른 有情에게 覆想說 欲樂을 일으키는 것과 染汙心을 일으키는 것과 (및) 곧 그에게 僞證 方便을 일으키는 것과 僞證에 대해 究竟하는 것 가운데에 있는 바의 語業이다.

E: 무엇을 거짓말이라 하느냐 하면, 다른 유정에게 생각을 숨겨 말하리라는 욕망과 즐거움을 일으키고 더러움에 물드는 마음을 일으키어 곧 그것에 거짓으로 증명하는 방편을 일으키나니, 거짓 증명하게 되는 마지막 동안까지의 온갖 말의 업이다.

<유가08 19:17-20>

A: 云何[34(·)]離閒語[51(·),15(·.)]謂[33(·)]於他有情[23(·),44(·)]起破壞欲樂[34(·),+15~25(-),31(·)]起染汙心[34(·),+15~25(-),31(·)]若卽[21(·)]於彼[23(·),44(·)]起破壞方便[34(·),+15~25(-),31(·)]及於破壞[44(·)]究竟[29][+15~25(-),31(·),42(·)]中[44(·)]所有[33(/),42(·)]語業[51(·)]

B: 云何[乙]離閒語[ㅣ,ノ仝ㅁ]謂[ㄱ]於他有情[ㅋ,十]起破壞欲樂[乙,ノ尸,人]起染汙心[乙,ノ尸,人]若卽[ㄱ]於彼[ㅋ,十]起破壞方便[乙,ノ尸,人]及於破壞[十]究竟[ノ尸,人,七]中[十]所有[ㅅㄱ,七]語業[ㅣ]

C: {云}何乙 離閒語(ㅐ)ㅣノ仝ㅁ 謂ㄱ {於}他 有情ㅋ十 破壞欲樂乙 起ノ尸人 染汙心乙 起ノ尸人 若 卽ㄱ {於}彼ㅋ十 破壞方便乙 起

29) 이 '竟'자는 피휘자가 아니다.

ノ尸人 及 {於}破壞十 究竟ノ尸人七 中十 有ンㄱ 所七 語業(ㅣ)ㅣ

D: 무엇을 離間語라 하는가? 즉 다른 有情에게 破壞 欲樂을 일으키는 것과 染汙心을 일으키는 것과 곧 그에게 破壞 方便을 일으키는 것과 破壞에 대해 究竟하는 것 가운데에 있는 바의 語業이다.

E: 무엇을 이간질의 말이라 하느냐 하면, 다른 유정에게 깨뜨리겠다는 욕망과 즐거움을 일으키고 더러움에 물드는 마음을 일으키어 곧 그것에 깨뜨리는 방편을 일으키나니, 깨뜨리게 되는 마지막 동안까지의 온갖 말의 업이다.

<유가08 19:20-23>

A: 云何[34(·)]麤惡語[51(·)??,15(·.)]謂於他有情[23(·),44(·)]起麤語欲樂[34(·),+15~25(-),31(·)]起染汙心[34(·),+15~25(-),31(·)]若卽於彼[23(·),44(·)]起麤語方便[34(·),+15~25(-),31(·)]及於麤語[44(·)]究竟[30][+15~25(-),31(·)?,42(·)]中[44(·)?]所有[33(/)?,42(·)]語業[51(·)]

B: 云何[乙]麤惡語[ㅣ,ノ𠂇口]謂於他有情[ㅋ,十]起麤語欲樂[乙,ノ尸,人]起染汙心[乙,ノ尸,人]若卽於彼[ㅋ,十]起麤語方便[乙,ノ尸,人]及於麤語[十]究竟[ノ尸,人,七]中[十]所有[ンㄱ,七]語業[ㅣ]

C: {云}何乙 麤惡語(ㅣ)ㅣ ノ𠂇口 謂 {於}他 有情ㅋ十 麤語欲樂乙 起ノ尸人 染汙心乙 起ノ尸人 若 卽 {於}彼ㅋ十 麤語方便乙 起ノ尸人 及 {於}麤語十 究竟ノ尸人七 中十 有ンㄱ 所七 語業(ㅣ)ㅣ

D: 무엇을 麤惡語라 하는가? 즉 다른 有情에게 麤語欲樂을 일으키는 것과 染汙心을 일으키는 것과 곧 그에게 麤語方便을 일으키는 것과 麤語에 대해 究竟하는 것 가운데에 있는 바의 語業이다.

---

30) 이 '竟'자는 피휘자가 아니다.

E: 무엇을 추악한 말이라 하느냐 하면, 다른 유정에게 거친 말을 하겠다는 욕망과 즐거움을 일으키고 더러움에 물드는 마음을 일으키어 곧 그것에 추악한 말을 하는 방편을 일으키나니, 추악한 말을 하게 되는 마지막 동안까지의 온갖 말의 업이다.

참고문헌

김성주(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6)」, 『구결연구』 14, 구결학회, 213-232.

김영욱(2001), 「『유가사지론』 점토(點吐)의 해독 방법 연구」, 『구결연구』 7, 구결학회, 57-77.

남풍현(1999), 『『유가사지론』 석독구결의 연구』, 태학사.

박진호(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2)」,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216-231.

서민욱(2004), 「'如'에 호응하는 점토에 대하여」,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175-220.

서민욱(2005), 「『유가사지론』 권5·8의 점토구결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승재(2001), 「『유가사지론』 각필 부호구결의 해독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이광호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229-250.

이승재 외(2005), 『『瑜伽師地論』의 해독과 번역』, 태학사.

이승재·안효경(2001), 「각필 부호구결 자료에 대한 조사 연구-성암본 『유가사지론』 권제5와 권제8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9, 구결학회, 115-145.

장경준(2002),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기입된 구결자와 대응 구결점에 대하여-『유가사지론』 권5,8을 대상으로-」, 『구결연구』 9, 구결학회, 205-225.

장경준(2004가), 「『유가사지론』 점토 석독 구결 해독 연구(1)」,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192-212.

장경준(2004나), 「구결점의 현토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하여」,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149-174.

장경준(2005), 「『유가사지론』 점토 석독 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권5, 8의 단점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52-811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288-15〕
E-mail: prefall1@snu.ac.kr
접수일자: 2005. 12. 10.
게재결정: 2006. 01. 25.

A Study on Cipher Kugyols Inscribed in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Focusing on vol. Ⅷ. 18:05-19:23-

Lee, Byeong-gi

This paper surveys the brief textual structure of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vol. 8, and presents a tentative decipherment and interpretation of cipher kugyols inscribed in a part of that volume.

*Key words: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cipher kugyol(點吐口訣)